

보도자료

(총 4매)



동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메일 animal@animals.or.kr / 전화 (02)2292-6337 / 팩스 02)2292-6339

· 발송일자 : 2012년 3월 6일(화요일)

· 담당 : 이형주 팀장(010-2325-2755)

· 2011년 3월 7일(수요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종 돌고래를 쇼로 이용, 돈벌이? 서울시 서울대공원은 즉각 돌고래쇼 중단하고 방생하라!

제주도에서 불법포획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를 이용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 중단과 방사를 서울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일시 : 2012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서울시청 별관까지 행진(서울시장 면담요청서 제출)

○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포획되어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에 사용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방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서울대공원이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구입한 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의해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종이며, 또한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동물임이 2011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돌고래쇼에 사용하고 있다.

○ 지능이 높고 예민한 야생동물을 잡아 가두어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측면에서 돌고래쇼는 동물학대로 인지되어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동물쇼 산업이다. 이미 영국 등 유럽연합 회원국 중 13개국에 돌고래 수족관이 없으며, 호주 칠레 등의 국가에서도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육되던 돌고래를 방사하는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한편 제주도에서는 어민들에게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구입, 훈련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에 사용하고 서울대공원에 팔아넘겨 거액을 챙겨온 제주 퍼시픽랜드 대표 허옥석 씨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2월 8일 제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2차 공판이 3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 7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부터 제주 법원에 퍼시픽랜드가 불법포획하여 사용하고 있는 돌고래들의 몰수와 방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붙임1. 성명서.

붙임2. 동물자유연대의 돌고래쇼 반대 캠페인 일정. 끝.

※ 붙임 1. 성명서.

불법포획한 국제보호종 남방돌고래로 돌고래쇼 해온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은 돌고래쇼 즉각 중단하고 방사하라!

2011년 7월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제주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 등에 불법으로 팔아 넘긴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 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 거액을 챙겨온 퍼시픽랜드 대표 허옥석씨 등 두 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허씨는 3마리의 돌고래를 마리당 6000여 만원에 서울대공원에 팔았고, 3마리는 훈련된 바다사자와 맞바꿈했다. 이 과정에서 3마리는 폐사하였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종이며 그물에 걸렸을 경우 방류하지 않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포획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 중 남방큰돌고래는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해역에만 겨우 1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중 가장 작은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제주연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걸려 사망하는 남방큰돌고래가 2009년 7마리, 2010년 6마리로, 혼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남방돌고래의 혼획율은 7.9퍼센트로, 이는 IWC의 권고에 무려 7.9 배에 달하여, 정부의 보존정책수립과 관심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1월 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 부산 아쿠

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를 해양동물 전문 구조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해양동물의 구조 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주 퍼시픽랜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해양동물을 포획해 돈 벌이에 이용해왔다.

돌고래쇼는 야생동물을 잡아 가두어 강제로 훈련시킨다는 측면에서 동물 학대로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고래와 돌고래 보존협회’ (WDCS)가 지난 6월 낸 <2011 유럽연합 돌고래 수족관 보고서>를 보면, 공연·전시용 돌고래는 체중 감소, 폭력적 행동, 위장병 등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야생 돌고래의 갑절 가까이나 된다. 20일 동안 1,076km를 다니는 돌고래가 아파트 한 칸 크기의 풀장에 갇히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영국에선 이미 1993년 돌고래 수족관이 자취를 감추는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 13개국에 수족관이 없으며, 호주, 칠레 등의 국가에서도 해양포유류의 전시와 사육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은 사용중인 돌고래가 국제보호종이며 불법포획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돌고래를 쇼에 출연시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학대산업인 돌고래쇼에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사용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쇼에 사용하고 있는 금등이, 대포, 제돌이 등 3마리의 돌고래들은 그들의 서식지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는 서울시가 서울대공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대공원은 동물 학대하는 돌고래쇼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서울대공원은 불법포획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를 비롯한 세 마리 돌고래들을 바다로 방사하라!

하나. 서울시는 포획되어 야생성을 잃도록 훈련받은 돌고래의 방사를 위해, 바다적응 훈련비용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라!

2012년 3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핫핑크돌핀스/환경운동연합

※ 붙임 2. 동물자유연대의 돌고래쇼 반대 캠페인 일정



동물자유연대 돌고래쇼 반대캠페인

불법포획 후 쇼에 이용되는 돌고래에게 자유를!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님,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금둥이, 대포,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의
불법포획된 돌고래쇼 중단과 방사 촉구
서울시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

현재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에는, 남방큰돌고래 '금둥이, 대포, 제돌이'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이들 중 '제돌이'는 제주퍼시픽랜드측이 불법으로 서울대공원측에 판매해 돌고래쇼에 이용되고 있으며, 제주도 앞바다에서 헤엄치던 금둥이, 대포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원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좁은 쇼장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입니다! '금둥이, 대포, 제돌이'가 바다와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하는
영화 "THE COVE 더 코브" 무료상영회**



▷ 일시 : 3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5시 30분

▷ 장소 : 레이첼 카슨 홀
(중구 정동 34-1 동양빌딩 2층)
(약도보기 클릭)

▷ 대상: 누구나
▷ 주최: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 문의: 02-2292-6339

▷ 프로그램: 1. 제주 어린이들의 돌고래 그림 전시
2. 인증샷/돌고래 방생 촉구 메시지 남기기
방생 촉구 서명하기
3. 핫핑크돌핀스 활동영상 상영 및 공연
4. 영화상영 (상영시간: 90분)
5. 소감 및 활동가들과의 대화





오는 3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 부터는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스 홀에서 바다에서 사는 돌고래의 슬픈 진실을 다룬 영화 '더 코브'의 무료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